

주일 예배 11시

2017년 11월 12일 (둘째 주일)

*표의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.

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자리잡음

예배로의 부름

사회: 김성진 집사

*찬송 예수 우리 왕이여(38장) 다 함께

*기도 주기도문 다 함께

*교독문 91번 다 함께

*찬송 너희 죄 흉악하나(255장) 다 함께

기도 김영자 권사

찬송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(265장) 다 함께

말씀 고명환 목사

-그리스도 예수: 2.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(요 4장 43-54절)

성찬식

*찬송 주 예수 해변서(198장) 다 함께

교회소식 담당자

축도 담당자

교회소식

-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예배 후에 식사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. 꼭 참여해 주세요.

- 다음 주일(19일)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.

- 금주 읽을 성경: 시편 31-37편, 로마서

- 기도해 주세요-
- 1. 팔루스 교회에 주님의 예비한 영혼들 보내 주소서
- 2.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고 주님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
- 3.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지켜 주소서
- 4. 청소년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

모임시간 주일 10시50분, 수요일 오후 7시, 월-금 오전 5시20분, 토요일 오전 6시

순례자의 목상

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하여 적합하지 않는, 우리 하나님께 정말 받으심직하지 못한 못된 우리 자아! 정말 잘못된 우리 자아! 우리 속에 선한 것 거하지 않는 우리 자아! 이것을 처리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.

주님의 십자가는 용서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는 은혜도 있거니와 이와 같은 못된 나를 불살라 버리는, 주님의 죽으심과 우리 주님의 무덤으로 나를 장사 지내 버릴 수 있는,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. 십자가는 능력입니다!

씻어주시고 지나간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여 주시는 능력입니다. 그리고 또 한편 십자가는 내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하지 않는, 하나님 앞에 기쁨 되지 못하는, 우리 하나님께 참마음으로 순종하기에 적합하지 않는, 이 못된 나를 처리하여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.

사람이 그 무엇으로도 이런 것에서 자유롭기가 어렵습니다. 우리가 어떤 댓가를 지불한다 해서 지나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나요? 아닙니다.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만 가능합니다.

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가 되어가나요?

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하고,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 되며,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며,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로운, 이런 아름다운 자가 될 수 있나요?

우리는 금식함으로도 불가능합니다.

그 무엇으로도 아니 됩니다.

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이 이런 우리를 제거해 버릴 수 있습니다.

주님

박정숙

금보다 귀하신 주님을
날마다 내 마음속에 모시고
함께 할 수 있음이
얼마나 행복한지요!!

고귀하고 존귀하신
주님의 빛과 사랑 안에 거한 삶이
내겐 세상의 어떠한과도 바꿀 수 없는
삶의 전부가 되어
늘 날마다 잠잠히
겸손하게 주님의 보좌만을 바라보고
은혜를 간구해봅니다.

세상 속 수렁과 웅덩이에 있는 나를
밝은 빛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,
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,
그 값진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!

비록 겨자씨처럼 작고 세미 하지만,
빛과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는
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기에
오늘도 넉넉한 마음으로
주님 모시고 하루를 시작합니다.

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, 감사합니다!

내 주님과의 사귄

박현리

주님! 나의 모든 시간들이
주님과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것,
이보다 더 복된 것이 있을까요?
그리고 나의 남은 시간들이
이러한 시간으로
내게 살아있다는 것은
그 무엇을 가진 것보다도 부요하며
그 무엇을 하는 것보다 기쁨이 오며
그 무엇 되는 것보다도
기대감이 넘치옵니다.

주님! 이러한 축복됨을 아는 이는
날마다 하루하루 주님의 발 앞에서
많은 시간들을 보내갔을 것입니다.
허비함 없이, 그 시간들을
자신의 최상의 행복된 순간들로
불들면서...

오늘 하루를 이러한 마음으로
주님과 함께 시간 보내지 않는다면
그 무엇을 한들 그 무엇이 된들
공허감만이 깃들 것입니다.

주님! 나의 남은 날들이
하루하루 기억될만한,
마디마디 새겨볼 만한
그리고 마디마디 더듬어볼 만한
그러한 날들이길 간절히 구해봅니다.

“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
예수를 바라보자!” (히브리서 12장 2절)



PALOUSE KOREAN CHURCH



2017년 11월 12일(45주) 31권-45호

1205 SE Professional Mall Blvd Ste 115
Pullman, WA 99163 Phone 978-807-4092

Website: pullmanpkc.org